

법에 대한 태도와 비행

김 준 호*

국문요약

법에 대한 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이다.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법에 대한 사회화가 법의식 발달과 사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며, 법의식 발달과 사회에 대한 태도는 법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어 비행을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남자 고등학생 605명에 실시한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에 대한 태도는 사소한 비행과 심각한 비행 모두 영향을 미치며, 법의식 발달은 주로 중비행에 영향을 주며 사회에 대한 태도는 주로 경비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법의식 발달 정도에 따라 사회에 대한 태도가 법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법의식 발달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법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법의식 발달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들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법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비행에 정당화, 합리화, 중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양육태도는 법의식 발달에 유일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처벌의 일관성과 청소년들이 인지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준법 관행은 주로 사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박사

I. 들어가는 말

죄와 벌이란 동전의 양면이다. 죄를 저질렀기에 벌을 받지만 벌이 없다면 죄라는 생각 혹은 인식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죄에 대한 벌을 규정하는 것이 규범이다. 어떠한 행동이 벌을 받아 마땅한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규범이라는 말이다. 부모님에게 불손한 행동,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은 처벌을 통해 사회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중요한 타자들의 반응, 특히 상과 벌을 통해 나쁜 행동과 좋은 행동을 구별하게 되며, 더 나아가 처벌의 정도에 따라 옳지 않은 행동의 서열을 내면화하면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법에 대한 사회화와 청소년의 대표적인 문제행동인 비행 사이의 관계는 동전의 앞뒤면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법을 포함한 다양한 규범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다양한 비행행위를 바라다보는 시각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러한 관점은 비행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은 행동에 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 어려울 것이다.

즉 법을 포함한 규범에 대한 포괄적인 의식과 태도는 비행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일차적으로 과연 법규범에 대한 다양한 인지적 측면이 비행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더 나아가 법규범에 대한 인지적 측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봄으로 법과 비행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법과 법규범 위반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 하나는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인지발달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로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사회학습이론에 근거를 둔 관점이다. 주지하디시피 인지발달이론은 인간은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정한 발달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한다. 어린 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단계를 거치며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행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을 전개한다. 한편 사회학습이론은 법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가치 및 태도는 학습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법에 대한 우호적(favorable)인 태도나 비우호적인 태도는 중요한 타자들과의 상호작용 가운데서 학습 혹은 터득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두 관점은 서로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인지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발달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립되는 관점은 아니다. 하지만 학습이론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반면 인지발달이론은 환경보다 인간의 보편적 발달 단계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인다.

1. 인지발달이론

인지발달이론의 선구자인 피아제의 영향을 받은 콜버그(Kohlberg)는 인간의 도덕 판단 능력은 일정한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하였다. 인지발달이론을 도덕과 법규범에 적용한 그는 구체적인 도덕률이나 법규범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편적인 정의 원리와 도덕률은 시공을 초월한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인간의 욕구 중심으로 도덕성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보편적 도덕률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전개한 발달의 6단계는 세 가지 추상적인 수준으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전인습적 수준(pre-conventional level)로서 옳고 그름의 의미가 주관적인 감정의 측면에서 규정되는 전인습적인 수준으로, 벌과 복종 중심의 1단계와 자기욕구와의 교환으로 보는 2단계가 여기에 속하며, 인습적 수준(conventional level)에서는 부모나 사회의 기대, 법과 같은 권위에 의해 인정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수준으로서 인간관계의 유지라는 3단계와 권위 또는 사회체제와 규범의 존중을 보이는 4단계가 여기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후인습적 수준(post-conventional level)에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객관적인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며 위한 최대의 선을 강조하는 5단계와 일반적인 윤리적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6단계로 이루어진다(Rest, 1986a,

1986b; 문용린, 1994; 김준호, 2004 재인용). 텡과 레빈(Tapp & Levine, 1977)은 콜버그의 이론을 조금 변형하여 규칙-복종의 단계(Rule-obeying stage), 규칙-유지의 단계(Rule-maintaining stage), 규칙-형성의 단계(Rule-making stage)로 발전해 가는 발달단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일반적인 인지발달단계가 법과 도덕성 발달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성 발달 단계이론은 적지 않게 도전을 받기도 하였다. 법규범을 모두 도덕률의 반영이라고 간주할 수 없으며 단순한 임의적 규칙에는 이러한 발달단계가 적용되지 않는 주장이다. 산츠 (Shantz, 1983)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절도, 폭행, 복장 문제 등과 같은 규칙 위반 사례를 제시하고, 그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폭행, 도둑질 등과 같이 도덕적 성격이 포함된 규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잘못된 것으로 반응하고, 규칙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복장 문제 등과 같은 문제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규칙 위반 사례에 대해 그리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반응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규칙에 있어서도 도덕적 성격이 강한 규칙과 도덕적 의미보다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규칙인 임의적 규칙(Arbitrary rule)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의적 규칙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정서적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튜리엘 (Turiel, 1980)도 규칙을 도덕적 규칙과 임의적 규칙으로 구분한 후, 두 영역은 개인의 상호 작용 경험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개념의 형성 과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규칙의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Turiel, 1983). Turiel에 의하면 임의적 규칙이란 행위 자체에는 도덕적 성격이 내재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을 원활하게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칙을 말한다. 따라서 임의적 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행위는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더라도 같은 사회적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임의적 규칙이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하여 도덕적 규칙이란 규칙 자체의 도덕적 성격으로 인하여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그러한 규칙을 말하는데, 절도, 폭행, 살인 등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 규칙은 행위 자체에 대한 선악 판단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임의적 규칙은 의무감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

는 것으로서 각기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임의적 규칙 개념의 형성 과정을 도덕적 규칙의 영역 속으로 포괄하여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박성혁, 1994; 김준호, 2004 재인용).

2. 사회학습이론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환경의 영향을 무시하지 않지만 환경보다 인간의 보편적인 성장 혹은 발달단계에 보다 더 역점을 둔 이론이 발달이론이라면, 환경의 영향을 출발점으로 한 이론이 사회학습이론이다. 대부분의 사회학 이론들이 정도 차이는 있으나 이런 가정을 지지하는데 인간의 모든 행동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치 및 태도는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습득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이 사회학습이론이다. 서덜랜드(Sutherland, 1939)의 말처럼 규범준수행동이나 규범위반행동 즉 일탈행동 더 나아가 범죄행위도 모두 주위 환경 속에서 학습된 결과이지 유전된 것도 아니며 스스로 체득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서덜랜드의 유명한 “차등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은 인간의 범죄행위는 동전의 양면인 범죄와 법에 대한 태도 및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에 대한 우호적(favorable)인 태도는 범죄를 억제하고 우호적인(unfavorable) 태도 즉 법이란 구태여 지킬 필요가 없다는 태도는 범죄행위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어떻게 학습되는가? 서덜랜드는 친밀한 집단 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며 매스컴 등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친밀한 집단이란 누구인가? 청소년에게 친밀한 집단이란 다름 아닌 부모와 친구일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특성상 친한 친구의 영향이 커 서덜랜드의 이론은 주로 친구와의 접촉(association)을 중심으로 검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김준호, 1989).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단순한 접촉 혹은 상호작용 그 자체보다는 그 결과로 형성된 법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이라는 사실이다. 서덜랜드의 이론은 많은 범죄사회학 이론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학습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코헨(Cohen, 1955)의 비행하위문화이론,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 1960)의 기회구조이론

으로 발전 혹은 통합되었으며, 버거스와 에이커스(Burgess & Akers, 1966)의 강화이론으로 비약되기도 하였다. 마차(Matza, 1964)의 중화이론 역시 이 이론에서 많은 시사점을 받은 이론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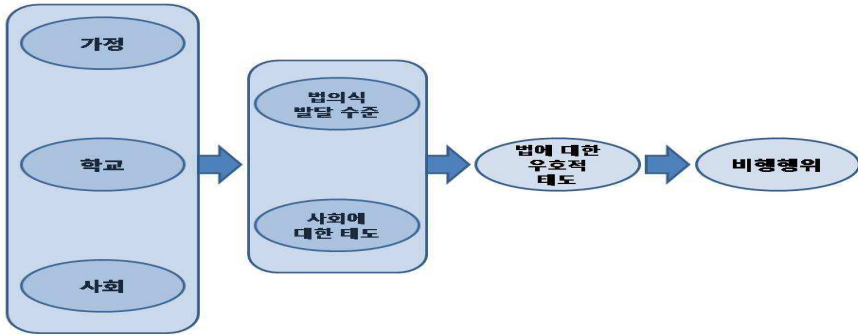
서덜랜드 그 자신은 경험적인 검증을 많이 하지 않았으나 제자이자 동료인 크레시(Cressy, 1953)는 전문적 소매치기 연구에 이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울프강과 페라쿠티(Wolfgang & Feracutti, 1982)의 미국 남부의 폭력하위문화 연구에도 적용되었다. 또한 마츠에다 (Matsueda, 1982)의 연구에서도 비행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내면화한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어 서덜랜드의 이론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경험적 연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연구(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 1989; 황성현, 2006; 이성식, 2006)를 통해 서덜랜드의 이론은 직접 혹은 친구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증되어 이론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인다.

3. 분석틀

본 연구의 기본적인 관심은 과연 법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법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본 연구의 분석틀의 핵심적인 매개변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법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 즉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져들기 쉬운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법에 대한 태도”의 선행 요인으로 “법 의식 발달 정도”와 “사회에 대한 태도”를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법 의식 발달과 사회 학습은 성격이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나 법을 도구적인 성격으로 이해하는 전인습적 수준과 법에 대한 태도 및 가치는 상관이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전인습적 수준은 1단계와 2단계를 포함하는데, 1단계에서는 법을 벌과 복종에 의해서 개념화한다. 올바른 것은 복종하는 것이며,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도덕적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이나 규칙은 일종의 명령이며, 그것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믿는 수준이다. 한편 제 2단계는 법을 도구적 이기주의 단계로서 나에게 이로울 것이면 무엇이든 옳다고 믿으며, 나에게 이롭

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전인습적 단계를 지나 적어도 인습적인 수준에 도달하는데, 일부 발달이 늦은 청소년들이 법을 도구적으로 받아드린 결과 법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상정하여 선행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한편 사회에 대한 태도는 마차의 중화이론(Matza, 1964)에서 시사점을 찾는다. 주지하다시피 마차(Matza, 1964)의 중화이론의 핵심은 대부분의 비행소년들도 그들이 저지를 비행 행위가 옳지 않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옳지 않은 행위가 정당화 혹은 합리화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리화를 통해 비행 행위의 부정적인 측면을 중화(neutralization)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옳지 않은 행위를 중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워본다. 즉, 우리나라 사회를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받아들이는 청소년과 법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사회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은 법에 대한 태도가 다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의식 발달”과 “사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 변인을 선정하였다. 사회학습이론에 의거하여 청소년들의 중요한 환경인 가정, 학교, 그리고 일반 사회의 사회화 기제를 선정하였다. 가정은 ‘양육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가정에서 법과 규칙을 도구적으로 양육하였는가 아니면 도덕적인 규범으로 양육하

였는가에 따라 법의식은 물론이고 사회를 바라다보는 태도와 결국은 법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리라는 가정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 사회화는 ‘학교 교사들의 처벌 관행’을 통해 알아보았다. 처벌이 적절하며 일관성이 있는가 여부를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일반 사회에 대한 요인은 ‘경찰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의 준법 정도’로 알아보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마차가 제시한 중화기제의 하나인 “비난자를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에 착안하였다. 자기를 비행소년이라고 비난하는 인습적인 사람들을 비난함으로 본인의 비행행위를 합리화 혹은 중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학교 교사, 종교지도자, 더 나아가 사회지도층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생각이 들면 이러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의 옳지 않은 비행행위를 합리화, 정당화, 중화시키는 기제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남자 고등학생 605명을 대상으로 2004년에 실시하였다. 당시 교육통계연보에 의거하여 인문계 실업계 비율을 고려한 할당표집을 하여 표집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분포

구 분	인문계	실업계	계
남 자	432(71.4%)	173(28.6%)	605(100.0%)

2. 척 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즉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인 비

행은 크게 사소한 비행(경비행이라 칭함)과 제법 심각한 폭력 성향이 강한 비행(중비행이라 칭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두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한 이유는 사소한 비행과 심각한 비행은 여러 연구, 특히 비행 발전론적 관점에서 최초비행유형의 심각성에 따라 비행의 시작, 지속, 그리고 중단의 현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Nagin & Farrington, 1992) 원인과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경비행과 중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비행은 음주와 흡연 그리고 락카페나 비디오방 출입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중비행은 무단결석, 구타, 집단 패싸움 등을 선정하였다. 물론 이런 비행 행위가 모든 비행을 대표한다고 간주하기 어려우나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 비행의 실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된다.

법에 대한 태도는 “성공을 위해서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5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법의식 발달 수준은 기존 연구를 수정 보완한 6문항, 사회에 대한 태도는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법이 통용되는 사회인가를 알아보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선행변인인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에 대한 사회화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은 주로 효용가치 중심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학교는 처벌의 일관성과 적절성으로, 사회는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태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모든 문항은 5점 혹은 4점 척도이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¹⁾

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분석틀은 두 단계로 나뉜다. 인과관계의 순서로 보면 가정, 학교에서 법과 규범에 관련된 사회화와 청소년이 인식한 사회지도층의 준법태도가 청소년의 법의식 발달과 사회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선행되고, 법의식 발달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법에 대한 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비행행위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나중이지만, 연구의 목적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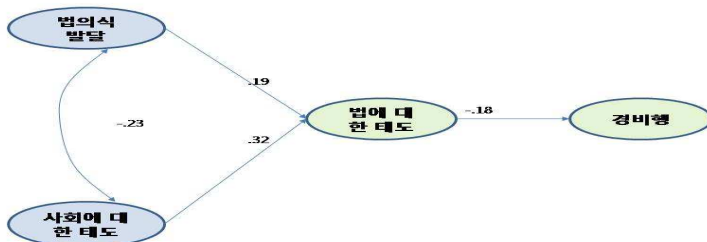
1)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내용은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으로 보면 법의식 발달과 사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비행행위와 연관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먼저 법의식 발달과 사회에 대한 태도, 그리고 법에 대한 태도와 비행행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행 행위는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1. 경비행 모델

다음의 <그림 2>는 법의식 발달, 사회에 대한 태도, 및 법에 대한 태도가 경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LISREL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특이한 점은 법의식 발달과 사회에 대한 태도와 경비행 사이의 직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법의식 발달과 사회에 대한 태도는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법에 대한 태도를 거쳐 경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 경비행 모델²⁾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순서에 따라 해석을 해본다. 법의식 발달과 사회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성은 $-.2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2) 모든 계수는 표준화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그림에서 생략하였다. “법의식 발달”과 “법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회에 대한 태도”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수준이 높게 측정되었고 비행은 점수가 높을수록 많이 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났다. 법의식 발달 단계가 높을수록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법의식의 발달을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법의식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우리나라 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인다.³⁾ 한편 법의식이 발달할수록 법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즉 법을 준수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종합하면 법의식이 발달한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본인 스스로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편 사회에 대한 태도와 법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법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법에 대해서도 비우호적 즉 필요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는 청소년들에게 법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에 정당화 혹은 합리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이 시사된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나도 법을 어기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얼핏 보면 당연한 결과라 생각되나 법의식 발달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모순이 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의식 발달 단계가 높은 청소년들은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더 많으나 법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많은 청소년들은 법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법의식이 발달하여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모순인 것이다.⁴⁾

이와 같은 모순처럼 보이는 관계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세 변인들 사이의 통계적 상호작용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 알아본 결과 다음의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주지하다시피 통계적 상호작용이란 하나의 독

3) 5점 척도에서 평균이 2점 이하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라다보는 모습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밝지는 않다.

4) 일반적으로 3 변인 사이의 관계는 모두 정적인 관계(+) 이거나 둘이 마이너스 즉 부적인 관계라면 다른 하나는 정적인 관계라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한 관계는 부적인데 다른 둘은 정적으로 나타나 모순처럼 보인다.

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라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 예상한 바대로 결과가 발견되었다.

<표 2> 법의식 발달 정도에 따른 사회에 대한 태도와 법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⁵⁾

구 분	상관계수	유의도
법의식 발달 하위집단	.333	.000
법의식 발달 중간집단	.165	.004
법의식 발달 상위집단	.146	.071

법의식 발달 점수가 9점 이하인 집단(6.1%)에서는 상관계수가 .509(sig. = .002)이다.

위의 <표 2>를 보면 법의식 발달 수준이 낮은 집단의 사회에 대한 태도와 법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제일 높으며 발달 수준이 중간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나 상위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즉 법의식 발달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에 대한 태도가 법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부연하면 법의식 발달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법을 수단시 하는 태도 즉 법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낮은 집단인 하위 6%(총점 9점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상관계수가 .509로 매우 크다는 사실은 상호작용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에 대한 태도와 경비행 사이의 관계는 예상대로 법을 수단시하는 즉 비우호적인 태도가 경비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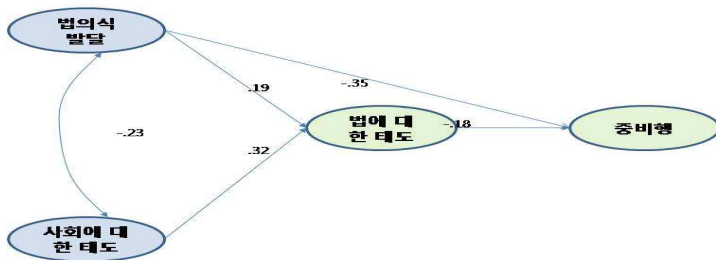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법의식 발달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비록 우리나라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나 이러한 태도가 법을 수단시 하는 비우호적인 태도로 발전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데 합리화 수단으

5) 법의식 발달 수준은 3점 척도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발달 하위집단은 6문항을 더한 총점이 6점에서 11점까지의 25% 정도의 학생이며, 중간집단은 12점에서 14점까지의 약 50% 학생, 상위집단은 15에서 18점까지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물론 이와 같은 분류는 무리가 없지 않으나 통계적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된다.

로 사용하는 경향이 없는데 반하여, 법의식 발달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범위반을 합리화시켜주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법을 수단시 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이 예상대로 경비행을 보다 많이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중비행 모델

다음의 <그림 3>은 법의식 발달, 사회에 대한 태도, 법에 대한 태도와 중비행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⁶⁾



<그림 3> 중비행 모델

법의식 발달과 사회에 대한 태도가 법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경로는 경비행의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⁷⁾ 경비행의 경우와 다른 점은 법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중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법의식 발달정도 혹은 수준이 경비행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으나 중비행에는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에 대한 태도는 경비행과 마찬가지로 중비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법에 대한 태도가 중비행에 주는 영향 역시 경비행과

6) 측정 모델에 관한 분석 결과는 부록 1로 대신한다.

7) 경로분석(Path analysis)과 공변량구조분석(LISREL) 모두 통계적 방법의 특성 때문에 결과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크게 다르지 않아 소수점 두 자리를 반올림하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 즉 법의식 발달정도가 경비행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중비행에는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의식 발달 정도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청소년들이 중비행을 많이 하지만, 경비행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일차적으로 알 수 있다. 오히려 경비행에는 법의식 발달의 수준보다 사회에 대한 태도가 비록 간접적인 영향이긴하지만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부연하면 법의식 발달정도는 중비행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반면 사회에 대한 태도는 경비행과 보다 더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면 법에 대한 태도 역시 비우호적 즉 법을 수단시 하는 경향이 나타나 이러한 합리화는 경비행에는 영향이 크지만 중비행에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영향을 준다. 즉, 중비행에서 사회에 대한 태도보다 법의식 발달정도가 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중비행은 사회에 대한 태도로 합리화, 정당화, 혹은 중화를 통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법의식 발달정도가 낮은 청소년들이 보다 많이 저지른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그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나쁜지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죄책감도 별로 없다는 보도 내용을 본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것 같다.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소년들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법 위반을 합리화시키기보다는 법의식 발달정도가 낮은 소년들이 많다는 점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엿볼 수 있다.

3. 법의식 발달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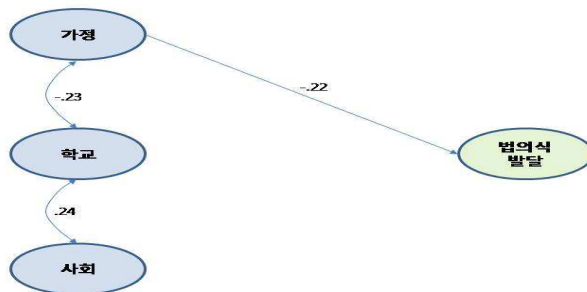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을 두 단계로 알아보고 있다. 법의식의 발달정도와 사회에 대한 태도가 법에 대한 태도 그리고 비행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의 법의식 발달 수준은 사회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화과정을 토대로 학습된 결과로 청소년들이

8) 한겨레, 2006.12.23. 「죄의식 무너지는 10대들」 <http://www.kinds.or.kr/>. 문화일보, 2007.01.12 「청소년들 범죄의식 없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유포」 <http://www.kinds.or.kr/>. 동아일보, 2007.04.14. 「'불감증 세대'비탈에 선 아이들-우등생 있어도 모범생은 없다」 <http://www.kinds.or.kr/>.

생활하는 가정, 학교에서 배우거나 사회전반의 법과 규칙에 대한 태도를 인식하여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법의식과 사회에 대한 태도가 가정, 학교, 그리고 일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측면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살펴본다.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은 주로 법이나 규칙을 효용적 혹은 도구적인 측면의 양육태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학교의 영향은 처벌의 일관성, 그리고 사회 측면은 청소년들이 인지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과 경찰의 준법 정도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법의식 발달 정도와 가정을 비롯한 선행 요인 간의 관계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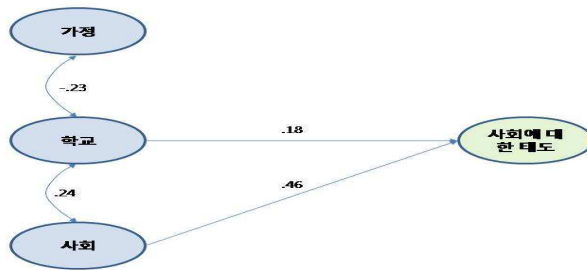
가정, 학교, 사회라는 세 가지의 요인들 중 법의식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뿐이었으며 학교나 사회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의 법이나 규칙에 대한 효용적 혹은 도구적인 측면을 강조한 양육태도는 법의식의 발달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의식 발달이 주로 일차 사회화 기관인 가정에서 거의 이루어지며 그 후 학교로 발전하며 일반 사회로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비행모델(그림3 참고)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법의식 발달수준은 학교와 사회보다는 가정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법과 규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법의식 모델

4. 사회에 대한 태도

다음의 <그림 5>를 보면 사회에 대한 태도와 가정, 학교와 사회라는 세 요인 간의 관계는 앞서 살펴본 법의식 발달과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법의식 발달에 유일한 영향을 준 가정은 사회에 대한 태도와는 관련이 없으나 법의식 발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학교와 사회라는 두 가지의 요인들은 사회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지도층인사들이 우리 사회의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학교에서의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처벌이 적절하고 일관성있게 이루어질수록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준법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학교에서의 처벌의 형식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사회에 대한 태도 모델

이처럼 법의식 발달과는 달리 사회에 대한 태도 즉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얼마나 정의롭다고 인식하는가는 주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준법 관행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학교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처벌을 하는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회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들이 경비행을 할 때 합리화 정당화 그리고 중화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된 결과와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지도

충인사들을 어떻게 바라다보는가에 따라 사회를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V. 논의와 결론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에 대한 태도는 사소한 비행과 심각한 비행 모두 영향을 준다.
2. 범의식 발달은 주로 중비행에 영향을 주며 사회에 대한 태도는 주로 경비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
3. 범의식 발달 정도에 따라 사회에 대한 태도가 법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범의식 발달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나 법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범의식 발달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들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법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비행에 정당화, 합리화, 중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4. 가정의 양육태도는 범의식 발달에 유일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처벌의 일관성과 청소년들이 인지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준법 관행은 주로 사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발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하자. 우선, 중비행과 경비행은 다른 차원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는 『범죄에 관한 일반이론(A general theory of crime)』에서 가정에서의 조기 사회화의 중요성을 부각했다(Gottfredson & Hirsch, 1990). 대체로 10-12세 이전의 조기 사회화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자기 통제(Self control)를 훈련받지 못해 비교적 어린 나이에 다양한 사소한 비행을 시작하며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하는 바를 본 연구 결과가 상당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갓프레드슨과 허쉬가 주목하는 자기 통제력은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범의식발달수준으로 대체하여 이해할 수 있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 폭력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심각한 비행의 경우 범의식발달수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의식의 발달정도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 내 사회화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논리의 비약일지 모르나, 서덜랜드(Sutherland, 1947) 역시 그의 유명한 범죄에 관한 9가지의 명제에서, 우선성(Priority)라는 개념은 비행을 언제 시작했느냐를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은 법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였으며, 최근의 범죄 발전론의 입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Patterson & Bank, 1991 ; Moffitt, 2004).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비행을 그치고 성인범죄로 전이되지 않으나,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비행을 시작한 청소년들(early starter)은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질러 결국 성인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점 역시 본 연구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즉 조기 사회화 기관인 가정에서 올바르게 못한 양육태도는 범의식 발달을 저해하고 범의식 발달정도가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는 청소년들은 법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급기야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사회에 대한 태도는 중비행보다는 사소한 경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역시 주목해야 할 결과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음주나 흡연 등 사소한 비행에서 완전히 자유스럽지 않다. 원만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으며 학교에도 잘 적응하는 모범생들도 상황에 따라 사소한 비행을 간헐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사소한 행위라도 지속됨에 따라 그 정도가 심각해지며 급기야는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소한 비행이라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또한 처음부터 중비행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소한 경비행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사소한 경비행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다보는가, 법과 규범이 준수되고 있는 사회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법보다는 권력과 부정이 판을 치는 사회로 보는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들이 인지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준법 관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우리 어른들이 반성할 점이 적지 않다. 예컨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 심지어는 법률

집행하는 경찰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소한 비행을 하고 싶을 때 합리화 혹은 정당화시켜주는 중화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마차(Matza, 1964)가 말하는 “비난자를 비난함(condemnation of condemner)”을 통한 중화(neutralization)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식 발달정도에 따른 사회에 대한 태도와 법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위의 결과와 연계하여 생각하면 중화기제로서 사회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의식 발달정도가 높은 수준인 청소년들은 이러한 중화를 하지 않는 반면 법의식의 발달정도가 낮은 청소년들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중화기제로 이용한다. 법의식 발달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있어도 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낮은 수준의 청소년들은 ‘높은 사람들도 법을 지키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인데 내가 구태여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리화하면서 사소한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심각한 비행은 가정에서 출발하며, 사소한 비행은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유발시킨다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법과 규범에 관한 잘못된 양육태도는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어른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지는가에 따라 청소년의 사소한 비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일차 사회화 기관인 가정의 중요성과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다는 평범하다면 평범한 진리가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 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 김은경, 1996,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2004, 『청소년 비행의 태도에 관한 연구: 법의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성현, 2006, “미국과 한국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관한 비교연구.” 제2차 한국범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성식, 2006,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들의 검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7:5-33.

[국외문헌]

- Burgess, R. L., Ronald L. Akers, “A differential association-reinforcement theory of criminal behavior.” *Social Problems* 14:128-47.
- Cressey, D. R., 1953, *Other People's Money*, Glencoe, IL: Free Press.
- Cloward, R., L. Ohlin, 1960, *Delinquency and Opportunity*, Glencoe, IL: Free Press.
- Cohen, 1955, *Delinquency Boys*, Glencoe, IL: Free Press.
- Gottfredson, M. R. &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tsueda, R. L., 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489-504.
- Matza, D., 1964, *Delinquency and Drift*, New York: Wiley.
- Moffitt, Terrie E., 2004,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offending: A Complementary Pair of Developmental theories”, In T. P. Thornberry,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p.11-54.
- Nagin, Daniel S., David P. Farrington, 1992, “The onset and Persistence of Offending.” *Criminology* 30(4): 501-523.
- Patterson, G. R., D. Capaldi, & L. Bank 1991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ng Delinquency”, in Debra J. Pepler, & Kenneth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hantz, C. U., 1983, “Children's Understanding of Social Rules and the

- Social Context.” In Serafica, F. C(Eds), Social-Cognitive Development in Context, The Ohio State Univ. Press.
- Sutherland, E. H., 1939, Principles of Criminology, Third Edition.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Sutherland, E. 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Fourth Edition.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Tapp, J. L., & Levine, F. J., 1977, Law, Justice and the Individual in Society: Psychological and Legal Issue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Turiel, E., 1980, Moral Development and Socialization, Boston: Allyn and Bacon, Inc.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London: Cambridge Univ Press. in the Making”,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 Wolfgang M. B., F. Feracutti, 1982, The Subculture of Violence, Beverly Hills, CA:Sage.

Attitude toward the Law and Juvenile Delinquency

Kim, Joon-Ho*

The major theme of the research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toward the law and juvenile delinquencies. The model of the research has 3 causal stages. The socialization of family, school, and the general society may influence the developmental stages of the legal attitude and the attitude toward the society. These 2 variables may formulate the attitude toward the law which may influence the delinquencies.

The major findings are, developmental stages is founded as a major cause of the serious delinquency while the attitude toward the general society has influence on the minor delinquent behaviors such as drinking and smoking. These 2 variables has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attitude toward the law, and the un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law may produce the rationalization or the neutralization mechanism which facilitate juvenile delinquency. It is also found that there is interaction between the developmental stages and the attitude toward the general society. The juveniles in the upper developmental stage may have negative attitude against the society but do not use these as the neutralization mechanism, while the juveniles in the relatively lower developmental stages may excuse their delinquent behaviors with these attitudes.

주제어 : 비행, 법에 대한 태도, 법의식 발달, 사회에 대한 태도

Keywords : juvenile delinquency, attitude toward the law,
developmental stages of the legal attitude, attitude
toward the society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Ph. D. in Sociology